

지는 땀방울만큼이나 가족이 그림고 교회가 그리운 시간들이었다. 훈련병 중 유일한 몰몬이었기에 군중병과 자주 대화를 나눴다. 몰몬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어디를 가나 말일성도 회원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다른 중대 훈련병과 마주칠 기회만 있으면 말일성도가 없느냐고 묻곤 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퇴소를 10일 정도 남기고 말일성도를 만날 수 있었다. 소식을 듣고 계단을 뛰어 내려온 그 형제와 서로 말일성도임을 확인하고 힘차게 악수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형제에게나 나에게 모두 큰 위안이 되었다. 먼저 퇴소한 나는 홍천에 남게 되었고 그 형제(최인성 형제)는 몇 주 후 퇴소해 다른 지역으로 배치받아 갔다.

얼마 후, 내가 속한 와드의 귀환 선교사를 통해 우리 부대가 있는 홍천에 사는 한 회원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받게 되었고, 첫 외출의 기회가 주어져서야 간신히 그 형제님을 만날 수 있었다. 홍천에 전도소가 있을 당시 침례를 받으신 분으로 성함은 김영재이시고 연세는 쉰 살이 넘으신 분이였다. 그분의 기억을 더듬어 전도소가 폐쇄되기 직전 약 1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고 그 중에는 군인도 있었다는 걸 알아내었지만, 안타깝게도 자매님 한 분의 집만 알고 있을 뿐 다른 분들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었다.

김 형제님의 뒤를 따라 골목길을 들어가 어느 집 앞에서 갓난아기를 안은 한 부인을 만났다. 그분은 권혜란 자매님이라고 했고 남편은 인자한 분이지만 회원은 아니었다. 부대 복귀 시간 때문에 대문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권 자매님을 통해 또 다른 한 명의 회원 이름을 알게

되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가려는데 "형제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세요. 몸 건강하시고요!"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군인이 되어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내내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고 계시다는 확신과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꼈다.

1992년 11월 7일 권 자매님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또 다른 회원, 변재원 형제님과 여러 차례 연락 끝에 그 형제님이 내가 있는 부대로 찾아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사병이기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변 형제님은 중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면회를 온다면 외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1992년 11월 29일 처음 가진 우리의 성찬식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변 형제님은 성찬식과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단란한 전세방을 구했고 참석 인원은 권자매님을 합쳐 3명, 찬송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끝까지 알고 있는 찬송가사를 종이에 적어 함께 보며 불렀다. 성찬컵 대신 깨끗이 소독한 유리컵을 사용했고 돌아가며 서로 간증도 나누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도 했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서적을 구입하고, 변 형제님이 보관해 둔 전도소가 있었 당시의 참석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연락을 취해 보았다. 결국, 후에 청년인 박성자 자매를 만날 수 있었다.

무디어져만 가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찬을 취하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변 형제님이 면회를 와야 외출이 되는 부자연스런 상태였다.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인 활동이나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홍천의 혹독한 추위속에서 첫겨울을 보냈다.

난 부대 전령에게 나와 똑같은 노란색 봉투의 우편물이 배달되는 곳이 있다면 소속과 이름을 적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로 가는 우편물 중에 노란색 봉투의 성도의 벗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소속과 이름을 넘겨받았다.

이때가 1993년 8월 초, 부탁한지 1년여 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전춘재 형제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박기환 형제도 같은 부대 같은 나무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부대와 그들의 부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부대였다. 우리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한자리에서 만난 몇 주 후 그 동안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던 변 형제님이 전역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춘재 형제와 박기환 형제



1993년 8월 15일 홍천에서 만난 교회 형제들 왼쪽부터 박기환, 변재원, 박문석, 전춘재형제



가 있는 부대로 권경을 형제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전입해 왔다. 그리고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대덕 형제를 알게 되어 몇 번 만나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은 바쁘고 자유롭지 못한 중에도 오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근근한 만남을 유지하며 지속

되어 왔다.

이곳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겸손함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교리와 성약 88편 63절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는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박기환 형제는 전역하여 대전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갈 아침이 밝아 오고 있다.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살아 계심을 성도의 벼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간증으로 전한다. □

## 역원 변경

-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지부 지부장 : 한근택 형제  
(전임자 : 이병기 형제)
-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감독 : 김용진 형제  
(전임자 : 이창용 형제)  
강서 와드 감독 : 김종우형제  
(전임자 : 이창빈 형제)
-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 지부장 : 김학수 형제  
(전임자 : 윤형식 형제)
- 대구 스테이크  
포항 지부 지부장 : Brown형제  
(전임자 : 장현문 형제)
- 전주 스테이크  
정주 지부 지부장 : 황인상 형제  
(전임자 : 이현주 형제)
- 원주 지방부  
제천 지부 지부장 : 도재욱 형제  
(전임자 : 이명식 형제)

## 선교사 훈련원 제 171기

(1994. 12. 26. - 1995. 1. 13.)

### <성명>

권 소 영 자매  
김 종 훈 장로  
민 동 규 장로  
박 길 용 장로  
박 은 경 자매  
배 진 수 장로  
백 승 숙 자매  
조 준 상 장로  
최 열 장로  
허 승 은 자매

### <출신지>

부산 서S/진주W  
인천S/주안W  
청주S/선화W  
대구S/김천B  
광주S/여수W  
인천S/담동W  
서울서S/상도W  
영동S/영동W  
부산 서S/괴정W  
영동S/성남W

###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서 선교부  
서울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대전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 최열, 백승숙, 허승은,  
박은경, 권소영, 김종훈, 민동규  
앞줄 왼쪽부터 : 조준상, 박길용, 배진수

